

광주경중, 박연식 작가 금요조찬포럼

“AI 경쟁력은 살아있는 영감…효율보다 의미에 투자”

“영혼 치유” 삶의 방향 다시 묻는 ‘K-Library’ 제안
지식·정보 재정의…소통 리더십·기업 경쟁력 빛대

“도서관은 지식창고를 넘어 마음을 돌보는 공간입니다. AI 시대, 효율보다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박연식 작가는 지난 6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711회 금요조찬포럼에서 ‘K-Library-잠자는 거인을 깨운다’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감정과 회복을 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전방향독서심리상담연구소 소장인 박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 습득의 장소가 아닌, 정서와 사유, 관계를 회복하는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했다.

별마당도서관과 파주 지혜의숲, 전주 연화정도서관 등을 언급하며 “공간은 훌륭하지만 책이 장

식처럼 소비되는 순간 도서관은 잠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다케오 시립도서관 사례를 들어 “도서관이 지역의 일상과 관광, 독서 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문학은 하늘의 문학이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모래알처럼 작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위대함과 나약함이 공존한다”며 “밤하늘의 별이 코스모스라면, 지상의 코스모스는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AI 시대의 위기를 진단, “풍요 속의 빈곤, 성장의 과부하, 회복의 상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서적 고립과 가짜 공감의 확산, 지식의 양극화, 가치 혼돈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이

해법으로 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며 “21세기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보건센터가 돼

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1년간 도서관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를 낸 전방향분류법을 소개했다. 한국십진분류표(KDC)가 어느 나라 서적인지, 장르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나누는데 전방향분류법은 한 권의 책도 다양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 이같은 방식으로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K-Library는 단순히 한국형 도서관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다시 정의하는 하나의 방향”이라며 “기술이나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지식을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읽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공간이 될 때 도서관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통 리더십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K-Library의 ‘K’는 네 가지로 분류했다. ‘Korea’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읽고 해석해 삶에 연결할 것인가를 묻는 출발점을 의미하고, ‘Knowledge’는 지식의 양적 축적이 아닌, 균형과 조화 속에서 지식

을 새롭게 분류하고 연결하는 사고 방식을 가리켰다. ‘Kind’는 사람과 자료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이며, ‘Koinonia’는 독서 소그룹을 통한 친교와 동료됨을 의미한다. 도서관이 침묵의 공간을 넘어 관계가 생성되는 공공의 장이 돼야한다는 제안이다.

강연 말미에는 도서관의 궁극적 의미를 다시 짚었다. 그는 고대 테베 도서관의 현판 문구 ‘영혼을 치유하는 곳’을 인용하며 “도서관은 마음을 위한 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의 말을 빌려 “천국은 틀림없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라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작가는 “AI 시대 진정한 경쟁력은 ‘Alive Inspiration’, 살아 있는 영감”이라며 “그 출발점이 바로 도서관이다. 독서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삶을 창조하는 일”이며 “건물보다 책, 장비보다 사람, 효율보다 의미에 투자해야 한다”고 기업 경쟁력도 마찬가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박연식 작가는 “K-Library는 단순히 한국형 도서관을 뜻하는 이름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다시 정의하는 하나의 방향”이라며 “기술이나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지식을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읽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공간이 될 때 도서관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집 앞에서 수리”…삼성전자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

고객 주거 지역에서 점검·수리·상담까지 한번에 제공

삼성전자가 ‘찾아가는 바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아파트·주상복합 단지 등 고객 주거 지역 인근으로 찾아가 서비스 부스를 1~2주 가량 운영하며 제품 점검부터 수리, 구매 상담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 인근의 삼성스토어 매장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출장 서비스 신청 없이 제품을 점검 받고 주거 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품 구매를 추천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50여 개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전국 500여 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객들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찾아가는 서비스’ 부스에서 사용중인 제품의 불변사항이나 설치 환경, 사용법 등에 대해 상담 및 무상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비나 공임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시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고객 가정에 방문해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현장 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부스에서 평소 관심이 있던 스마트폰이나 PC, 태블릿, 가전 제품 등에 대한 구매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전 제품의 경우 해당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특화된 전문 구매 상담도 가능하다.

또 삼성전자는 필요시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모바일·IT 제품 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점검 장비를 탑재한 ‘이동식 서비스센터’ 차량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향후 전용 온라인을 통한 접수 방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에너지공대 총장 선임 또 공전…공백 장기화

과반 득표자 없어 부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의 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켄텍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총장 선임 안건을

상정, 3명의 후보에 대해 표결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부결처리됐다.

이사회는 다음 회의에서 총장 선임 계획을 재수립하고 필요 시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켄텍은 지난 2023년 12월 윤의준 초대 총장 사퇴 이후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공모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후보 3인을 이사회에 추천했으나 이후 1년 4개월 동안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추천된 후보는 현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과 포스텍 총장 출신 김모 씨, 충남대 총장을 지내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정모씨로 알려졌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

현대차그룹, 미국 유력 매체 어워드 ‘썩쓸이’

카 앤 드라이버, 17개 차종 ‘최고 모델’로 선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주요 자동차 전문 매체의 상을 연속으로 수상하며, 미국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6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현대차 8개, 기아 5개, 제네시스 4개 등 총 17개 차종이 차급별 최고 모델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카 앤 드라이버’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문 매체로, 매년 전문 에디터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중인 차량을 직접 시승하고 종합 평가해 차급 및 부문별 최고의 모델을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한다. 현대차는 이번 어워즈에서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N-컴팩트 전기 SUV △아이오닉 9-중형 전기 SUV △팔리세이드-중형 3열 SUV △팔리세이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중형 하이브리드 SUV △아반떼 N-컴팩트 스포츠 세단 △싼타페 하이브리드-중형 픽업트럭 부문에 선정됐다.

현대차 팔리세이드는 매력적인 외장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다양한 기본 편의 사양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최고 모델로 선정됐다.

기아는 △EV6-컴팩트 전기 SUV △EV9-중형 전기 SUV △K5-중형 가족용 세단 △카니발-미니밴 △카니발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미니밴 부문을 수상했다.



현대차 팔리세이드

제네시스는 △GV70-럭셔리 콤팩트 SUV △GV80-럭셔리 중형 2열 SUV △G80-럭셔리 중형 세단 △G90-럭셔리 대형 세단 부문에서 최고 모델로 꼽혔다.

카 앤 드라이버는 이번에 선정된 차의 주요 강점으로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 주행 성능 등을 꼽았다.

아이오닉 5는 빠른 충전 속도와 경제하고 안정적인 주행 성능, 아반떼 N은 뛰어난 핸들링, 쉐보레 트루트랙은 고급스러운 실내와 우수한 승차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